

聖句

저희가..... 예수께 묻자
갈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
라를 회복하심이 이대까지
이까 (후-卷8節)

28.4.25

韓國統一主張은民族良心

外國人도分割案은反對

李大統領(李大統領)은 지난 七日「나는 현사태 그대로의 휴전회담은 반대한다. 압록강과 두만강(豆滿江)이남에 공산군이 있는 한 한국의 평화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도를 통 일하여 자손만대(子孫萬代)의 행복의 터를 만드려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二日 제四十五차 본회의에서「주은래(周恩來)의 제안을 반박하고 동일을 보장하는 항구평화가 보장안되는 휴전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다.

한편 지난 六일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휴전(休戰) 반대국민대회가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언행(言行)들은 한 국의 평화를 원치 아니하는 바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는 조국통일과 항구적인 평화를 요망하는 본질을 물리치고 자존심은 인정되지 않을 때 세계우방에 다 시 정죄되는 국음의가 앞뒤에 다 하려는 한국국민의 양심의 외침인 것이다. 외국인들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國連監視下의即時選舉提案

現狀休戰은共產化意味

위선론에서 R.P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아메리카 상원의원 노-렌드(共和黨) 정책위원장도 지난 十三日「국련은 쏘련의 평화제안의 성의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통일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다.

그의 이 제안내용에는「공산주의자들은 쏘련에서 원자폭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년내지 二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한국에서 휴전하고 그 사이에 자유세계에는 군비축소를 시키려 함일런지 모른다. 우리는 이

基督教文書運動緊要

韓國은異狀常態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생활과 선진기관과의 유일한 수단으로 가장 귀한 무기로 쓰이고 있는 것은 신문지이다 이 각가지 문서를 출판해내고 한편 이것을 잘 의 해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로 궁구하든 나마 최후의 수단으로 인쇄물을 이용하여 곧 신문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동포여러분에게 참으로 살길을 보여줄려고 하는 것이 본지를 발행하게 된 동기라고 할수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앞에 막혀있는 난관은 경제문제나 출판사정보다도 첫째 우리일에 대하여 우리 석자와 지도자 사업가들이 너무도 인식하고 협력하는 성이가 없는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애써 만들어 내놓아도 읽어보지 않는것이 첫째 성상하고 기막히는 일이오 둘째로 우리 동포 형제자매들이 앞날의 큰

위기를 두르고도 정신적 사상이 인문제를 생각해보고 알아보려고하지아니하며 이런 신문을 읽어보려고 하는 열심이 없는 일이다. 더욱 딱한것은 일본에 재류하는 교포가운데는 한글을 읽기가 어렵고 전연 읽을수없는 것이 많음이다 이러한 사정이니 우리가 모처럼 금전과 정력을 소비해서 하는 일이 허공을 치는 일밖에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하였다. 우리는 본지를 소수의 신자만을 위해서 내는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할수있는대로 많이 읽기를 바라는바 이인만「기독신문」라 하면

社說

題號變更에際하여
『福音新聞』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 가기에 당장 말은 지체를 행하기엔 그날그날을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마는 이제 우리앞에는 커다란 변동이 닥치고 놀라운 환란이 임해 올것은 면치 못할 일이다 아무리 평화 를 바라지마는 이름은 평화라 고 하면서 그것은 그 이면에 무서운 독이 들어 있는 달콤한 약을 던지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기로에 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을 가야할것이

요 정신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할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방황하고 그릇된 길 위협한 길로 달리는 동포형제를 보고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 있을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네들을 바로 이끌어 볼가 하는것이 우리의 충심으로 원 하는 희망이다.

어찌하면 우리 형제와 자매 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할수있으면 한집한집 찾아다니 면서 간절한 말로 일러들이고 권하고 싶으나 사실 그렇게

한국의 脚色家가 꾸며낸 脚本 對 등을 그 일정에 올릴 것이요
에 의하여 一定한 程度로 그
때문에 地方公署으로부터 中央
大公演으로 團圓을 짓는年中行
事의 하나인 것이다. 그脚本의內
容이 고무版으로 출판되었을
것은 留客의 이어서 留意해서 보
는 觀客에게는 도리어 실용하
는 單調感을 가지게 하는 것임으
로 그宣傳的價値
는 逆效果的인
것밖에 없는 것이다.

平和攻勢의正體

(東亞日報社說)

다라서 위원 制의 豫定順序
가 무엇인가는 豫定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은 그대들
의 指令下에 韓國戰爭의 終
結 소위 美國의 行政攻擊 細
戰 世界軍備減少 아시아問題
해결을위한 五國國 또는 七
國會議 독일문제 四大國會議
對獨修好約定反對 日本再武裝反

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제해나아가는 것은 현재 文化
이오 이것이 社會 政治적인
사색은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양식이다. 지금 公衆演說에서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정임이나
한인사회에서는 이문서운동이
는 큰 難關이상이 가로
막혀있다.

금번 인도로 부터 세계 기
독교문서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각지를 순회하는 W
H 와렌 박사 부부는 지난 四
月十一日 四時半 당시 聖
(기독교센터)의 실에 NC
C의사와 사제관계자가 회합한
석상에서 요지마음과같은 聖
본신자들은 받아들이지조차
고 배척하는 모양이기에 위선
제호를 "복음"으로 고쳐기로하
고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순
전히 기독교의 교리나 설교만
기금하지 않고 우리는 종교의
진리와 신앙의 도리를 전하고
기독교적 정신에서 우리가 마
땅히 생각할 것을 주장하며
기독교운동을 전장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
들이 민족적으로도 또 개인의
수양이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할만하고 알아야만
할 것을 힘써 소개하여 무릇
일반 우리 동포들이 흥미를 가
지고 알고자하는 것을 해결하고
조개해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리고 특히 이책에는 우리

의인 人道主義者中에서 著名이
나 이假面劇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스탈린은 十月의 聖經共產黨
大會를 前後하여 論文과演說로
平和攻勢의 目的을 顯明하며
平和의 眞正한 眞正한 眞正한
로 되 이 것은 眞正한 眞正한
을 취하는 것이요 資本主義를
도약하거나 共產革命을 使
는 것이 아니라 하
다. 이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
가. 즉 眞正한
平和의 眞正한 眞正한
나오 세계人民의 眞正한 眞正한
와 平和를 眞正한 眞正한
熱을 去勢시키어 眞正한 眞正한
자로 하여금 다리를 펴고 독
재와 虐政과 搾取의 眞正한
便安히 持續케하려는 것임에 不
過한 것이다. 平和의 眞正한 眞正한

아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지
마는 기독교정신이 들어있는 일
반문서로 일반사회인이 흥미를
느끼서 읽을수 있는 것을 넓은
의미로 기독교 문서라고 할 것
이오 이러한 문서를 널리 불
신자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긴급
과제라고 하겠고 둘째로는 기
독교 문화에는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을 나는 중감합니다. 그것
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독교문
화는 그 나라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 나라사람의 손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판
도 그 나라사람의 힘으로 하야
한사람이 한사람씩!

「信徒倍加運動」을 實踐하자
在日大韓基督敎總會傳道局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박사의 발언은 모인
이들의 대 환영을 받았다. 그
리고 동회합에 한국교회를 대
표하여 참석하였는 본사 전주
필과 박사와 다음같은 문답이
있었다.
전주필. 우리 한국에는 못가
십니까.
와렌. 대단히 미안하지만 입
국허가관계와 기밀관계로 못가
니다. 이러한 사정을 귀국의
문서운동 관계자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전란으로 특별히 어려

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마
는 문서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정이 아닐까합니다.
전주필. 어려운 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마는 지금까지 인
내난 용지난등 인내 노력속에
인쇄소하나 없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와렌. 그렇습니다. 다음번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주필. 당선이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리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나야 할런데 아
직은 대개 번역이니 재정입니다
와렌. 한국사람으로 할인이
없습니까 전주필. 있기는 있지
만은 대우를 잘 아니하니깐
그것을 해가지고는 살수가 없
으니까 있는 사람도 없어버리
는 형편입니다.
와렌. 그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뿐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문제입니다. 좀 인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박사의 말에의하면 인도에서
는 열다섯가지 다른 국어를
가지고 곤란한 문서사업을 한
다는데 우리한국에는 단 한가
지 국어와 귀한 한글이 있는
데 이것을 가지고 문서운동의
발전이 안되는 것은 기독교지도
층이 인식과 성의가 부족한
이유와 이사업관계자가 글쓰는
이와 문화인을 대우할줄 모르
는 허물과 책임이 많은것이니
그네들의 강성과 반성을 요구
하는바이다.

○이번에 김우현(金禹鉉) 박
사가 새로 청년회총무로 초
청을 받은것은 반가운 일이
어니와 전도에서 청년지도에
미국에 있는 자기의 동포교
회에 六十여년을 바친 일본
의 유명한 전도자 가와베
메이키씨와같은이가 나기를
바란다.



○일본
는 우리
동포에게
복을
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를 소망한
그 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제
그러나나대로 알아보면,
○동경교회에 오기선(吳基善)
임종순(林鍾純)이외한(李汝
漢) 목사 이후에 북해도에서
개척사업에 수고하신 眞正한
목사(金德裕)목사와 그뒤에 김
용하(金龍河)김수철(金洙植)
목사가 '요프하마'와 대관동
지에서 수고했고 그와동시에
역시 김치선(金致善)전인선
(金仁善)이영식(李永植)로
전현(廉顯)이외한(李汝漢)
파서지방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그 가운데 현재 남
아 있는이로서는 총회부회장
으로 대관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종현(李宗顯)목사와
관동 지방회장으로 '오가끼'
교회에 계신 박명준(朴命俊)
목사와 동경교회 오윤래(吳
允來)목사등 몇분은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년회에서 수고하신이는 초
대 총무 김정식(金貞植)선
생을 잊을려고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
며 학생들의 존경을 받은이
는 최승만(崔承萬)선생이다.
는 제주도지자로 계신 선생은
아직도 이땅의 일을 잊지못
한다고한다.

世界教會研究委設置 地方의 活動組織強化

日本NCC第六回總會

일본 NCC 제6회 총회는 지난 25일 東京 후지미 요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에는 산하 각교파 단체 대표와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 등 약 150여 명을 중심으로 일본 참관자 수백 명이 모였다. 오자카(小崎) 이장으로 부터 NCC의 성경과 의의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종 협력과 재정면에 관한 독립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역설되었다. 그 뒤를 따라 등단한 미국 NCC 동아본간사 위니페르마-원씨는 '인재가 많은 성에 놀랐다' 하며 그 배후를 원조하고 있는 신도의 무리를 잊지 말기 바란다' 하고 회의를 맞이하기보다 일을 많이 해야 하며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폐단에 빠지지 말고 복음선교운동이 이 나라 각지에 침투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마즈마에 재정책적으로도 자립에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 뒤로 미국장노회 한국선교사 포지 안다손씨가 축사를 하였다.

議長에 小崎牧師留任
임건선거에 드러가서는 투표한 결과 의장에 오자까지 부의장에 야시로씨가 각각 재선되었고 부의장 두 명을 두기로 하였다.

일본 NCC 제6회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에 가입교단 두 개 이상 있는 곳에 지방회의 설치
2 일본 기독교 교육 협회 편입
3 시정각사업장(七萬五千弗)을 건설 착수할 것.
4 전쟁범죄자 석방운동권
5 세계교회운동 조사연구 위원회 설치
6 선교百주년 기념운동案等이다

荊路의 基督教文書事業

— 한글판聖經出版과 一般關心 —

우리나라가 전란으로 어려운 중에 있으나 신앙에 불이 붙는 민족이라고 때때로 소개되는 한나 성경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한란중에서도 작년 말에 『한글판 성경』이 출판되어 이미 1년이나 되는데 사

는 사람이 선후를 다들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고사하고 악평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자도 있다 하니 『산업혁명전의 영국사람들』 같이 한권의 책만 사당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인 못하다. 혹자를 귀

우리의 조국은 20세기 후반의 세계평화를 위한 제단으로 말로 다 못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제 세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일이나 후의 인간들은 이 속에 희망도 없는 것이 말하는 자도 있다. 그것도 관점여하에 따라서는 근거없는 말은 아닐지 모르나 필자는 제

職工되는 神父九十名 佛國舊敎의 傳道努力

NANA종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불란서에서는 캐슬리神父九十名이 교회와 수도원에서 나와서 공장에 직공이 되어 도리루와 합마를 잡고 일을 하면서 공장직공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하였다. 노동계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신부와 수도사들에게 대한 평판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 설교할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속에 화하여드러가야 할 것이라고 깨닫고 이런 일을 시작했다. 신부들은 노동회의에도 출석하나 거기서 설교할 것은 아니라고 개인개인의 끈

復活節 다음 月 曜日 異動

영국에는 부활주일 다음번 월요일(月曜日)에 결혼식을 거행하는 자가 행해지다는 전설이 있는데 금년에는 부활주일 전 일요일(즉 전설보다 일주일 앞서) 결혼식을 거행 하여달라고 복사를 종용자가 수백건(數百件)이 있었다 한다. 그 이유는 금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니 다음 월요일에 결혼하면 신년도 소복세가 시작되

祖國興起

이와같은 소문이 필자에게 굳어지는 것은 일본에서 수차 조국을 방문할 때 마다 달라지는 조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무리를 보는 때에 더하여진다. 필자는 행복스럽게도 조국을 방문할 때 마다 기독교의 유별한 진화에 감동하는데 작년

서공회는 개역(改譯)을 개회 하였다. 구절자법(舊綴字法)을 변경하면 읽힌다고 해서 장로교회 총회 등에서 결의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바른 철자로서는 별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신설자법 한글이 보급되고 있는 때였다.
제2차대전 중에 신설자법한 글은 거의 완성되어 한글사전도 나오고 문학작품도 신설자로 발표되고 있었다. 이렇게 신설자법이 보급되면 성경은 현재의 고전문학(古典文學)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때에 한 국서서공회에 있었던 제임스 로 발손씨(지금 일본서서협회에 있다)는 한글 신설자법을 배우고 성경을 신설자법으로 교

필자는 이 글을 읽고 법에
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른방면의
일도 그러하기와 기독교계의
한결이 남 모르는 수고가 많
은 일은 없으나 하는 생각이
이러났고 따라서 『일은 하되
함마디 좋은 격려나 존경이란
것 보다 원망과 시비를 받
아 하는것도 우리나라의 일군
이로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
도 이러했다 (羅)

민의 생활양식은 복잡조란한 것
 뿐이다. 그 속에서 옷터는 자
 기도『인간폐허』와 잡음을 느
 킨다. 거기서 이 영화의 해설
 자는 이제 백년후(二〇四九년)
 의 인간으로서 백년전(一九四
 九년) 전의 행위를 비우수면서
 회귀화 시킨다.

해설자는 말하기를 지금으로
 부터 百年전에 비바리아라는
 거리에서 옷토ー라는 청년하나
 면 살

難民救濟에難色

전제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련 경제기관은 한국
 정부 관리들이 부패하였기때문
 에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로이
 타－울린이 세계에 보도하고있
 다. 전제난민구제용 양식과 이
 류를 내어주면 그것이 난민들
 에게 분배되기까지의 중간에서
 많이 없어진다 예(例)를 들
 바금은 혈케 보아도

五本書의 內容區分
 처음인인사 말 一章 1節
 (一)
 신도의 모범 一 2 10
 1 신도들에게 대한 감사 一 2 13
 2 할문 당시의 회상 二 1 12
 3 복음 받을을 감사 二 13 16
 4 바울의 애정 二 17 20
 5 메오메를 껴본한 이윅와
 신도들을 위한 기도 三 1 13
 신앙생활을 전함 四 1 15
 1 실제 문제 四 1 12
 2 머리말 四 1 2
 3 성경문제 四 3 8
 4 사당과 노동문제 四 9 12
 5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 四 13 11
 6 죽은자의 부활 四 13 18
 7 재림의 시기 五 1 17
 3 교회생활에 대하여 五 12 24
 마조막 인사 말 五 25 28

說教

患難날의祈禱

歷下 二十一章一節—十三節
中央教會牧師 盧震鉉

유다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
나님을 붙신하고 아새라목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왕 아합과 동
맹을 체결하고도 하나님의 진
노가 유다왕국에 임한것이다
그 진노는 유다국동방국경에
인접한 모압 암몬 다른 암몬
(예돔 즉 세일족속) 三國의
동맹대군이 유다국을 침공한것
이다. 이와같은 국가존망지부
家存亡之秋에 제하야 왕은 아
모리 살피보아도 약소한 자국
군세와 병력으로서는 도저히
적의 대군세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기위하여 전
국민에게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왕 자신이 국민의 대표를파함
개 예루살렘성전에 드러가 드
려운기도를 드린것이다.

六절부터十二절까지가 여호사
밧왕의 기도의종결론이『대개
우리를 치러오는 이온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아와
어떻게할는지 아지못하옵고 오
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여호와
께서 이와같은 간곡한 기도를
드르시고 그중에 한사람인 야
하시엘을 택립하여 예언자로
삼고 신의를 전달하게하였다.
그 예언자의 전달한 신의는二
十장十五절부터十九절까지이다.



校座 學校講座
會講 教師講
教授法 教授法

童話의方法

魯安理

(7)

一 자발적 예배. 이것은 어떤
것이고 하니 아까 우리가 생
각한 저 하나님의 경향이 우
리의 어떤 경험에서부터 자연
히 자발적으로 일어나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큰 불행에 당하게 되었다. 오
시아왕이 죽었던것이다. 아모스
는 장에서 양모를 팔다가 회
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세밀하고 복잡한 예배
형식을 보고 사회적 악을 느
끼는 동시의 백성의 그 절실

없다 혹은 죄악의 보응이든지
혹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위
함이든지 어느 한가지이유에서
환난은 오는것이다. 범죄로 인
하여오는 환난의 예로는 소돔
과 고모라의날이나 노아의날등
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위하여
서는 물이당한 환난이다. 지금
우리한국민족이 당하는 환난은
소돔 고모라 노아의날의 환난
의류인가 그렇지않으면『여호와
앞에 그사람들이 완전하고 정
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
에서 멀리매단』을의받은 환난
의 유인가 우리는 물의 환난
이 되기를 원한다. 원동화제도
소돔 고모라 노아의날의 환난
인가하여 서리워하는바이다.
제二 신앙이 더해지기위하여 기
도하자 환난을 당할때에 우리
신앙에 동요가 생기지않는다. 환
난을 당한즉 하나님을 원망하
고 무신적태도가 되며 자포자
기하여 낙심하는자도 왕왕히
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사
록 철석같은 신앙을 굳게지키
여 더욱하나님 앞에 영광을
꽃들이는사람도있다. 금이 큰
불속에 드러갈사록 더욱찬란한
광채를 발하는것이다.

고린도 제四장八·九절『四방
으로 옥여움을 당하여도 놀이
지아니하며 답답한일을 당하여
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피박을
받아도 바린바되지 아니하며
끼구러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우리는 환난을 받으
나 낙심하는자가 되지말고 환
난을 받을사록 더욱더 신앙의
있고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도 홀로 만은 기도를 하시면 생
각하셨었다 회세마네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귀는 중에 말할수
없는 고요에 빠지셨던것이다.
종교생활이 성숙한 사람이면
위험할 때에나 낙심했을 때에
나 근친을 잃었을 때에나 중
병에 신음할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
하여 호소한 경험을 가지는것
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것을 보고 강한
의본과 깊은 동정을 느낀다.
또 가련한 새끼나 어린 짐
승들을 볼 때에도 그 아름다
움을 감탄하는 동시에 하나님
의 임재에 대한 느낌이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傳道欄 지금은

예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설교말씀은『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하는 것이요 사도 바
울이 아세아 사람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회
개하고 예수께 대하여는 믿으
라고 하는것이였다.
이와같이 첫째는 자기 죄를
회개할것이요 둘째로 예수·그
리스도를 믿을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참 종교생활의 첫걸음
이요 최 사함을 받고 구원얻
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차로 말하면 두 바
퀴라고 새로 말하면 두 날개
같아서 어느 한가지도 없어서
는 안될 요긴한 조건이다
사람이 회개와 신앙을 가지
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어떤 활동적 경험에서부터 어
는 것이 없이 구극적 실재(究極
的實在)에까지 인도받는 일이
또한 많은것이다 다음에 몇가
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다
(1) 우리는 배복한 형편에 살
때에 마중 그리스도교적 분위
기에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나
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2)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예배의 경험을 말하라
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아들
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연못
가에 모아 예배하던 때를 말
했고 혹은 홀로 밤하늘에 무
려진 무수한 별을 쳐다보던
때를 말했으며 혹은 새나 양
이나 애기 같은것을 볼 때를
말했고 혹은 즐겁던 봄날의

금일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내용에도 우리 민족의 과거의 죄
를 회개하는 논으로 참회하는
소극적 기도와 동시해 우리의
바라지 마시고 저 황혼 같은
수다한 적의 진로를 막아주시
고 저들을 멸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여달라는
적극적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의 모
든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
회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희대적
이되리라』(三三三三三三三三)
제4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이 보아주시기 위하여 기

구원의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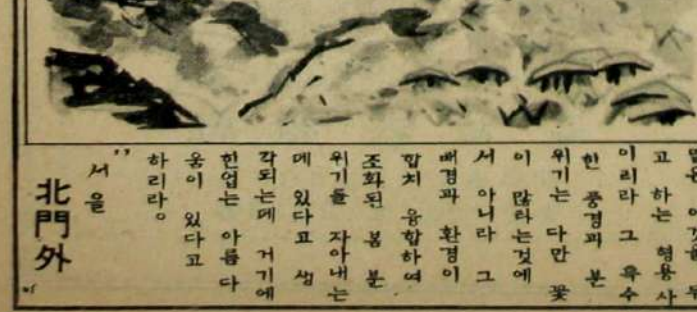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곧 그 사람의 죄
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해
주시다. 옛날 삼개이라는 사람
은 세무서 관리로 고리대금
은 을지 못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여 부자가 된 사람인
데 평소 애상심에 가색이 되
는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
이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본시 불의하게 모은 돈은 사
나 갔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을 믿고 의지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흘만에 예수께서는
그 기뻐한 마음을 보시고『오
나 구원이 이제에 이르렀도다』
고 하시고 축복하신 일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리실 때에 한편에 같이 달린
강도 한사람은 그 손과 발에
경험을 말했다.
(3) 어떤 클라쓰에서 하루는
자동차에 다쳐서 부상한 어린
동무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가난하였다. 이 학생을
도 거개가 다 가난한 집 아
들이었으나 이렇게 가난한
세상을 생전 처음이었다. 그대
서 거기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 하나님을 자연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4) 한 젊은이를 어떤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
는 유언에 관하여 목사를 중
심하여 논의하였는데 목사의
말에 감화받은 정도 물론 있
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착하심을 깊이 느끼게 되어
자기들도 이 하나님의 사업에
적정 힘을 맡고 있는 사실을

도하자 금일부러 우리동포가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보
아주시지 아니하실가 두렵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에 잘
견디고 지나감을 보아주시기 위
하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호
와 나들 공물이 여기사 미워
하는 자에게 발은 곧고를 보소서
당신은 나를 사랑의 문에서 이
르키시는 자입니다』(詩九十三三)
오늘 우리동포가 당하는 환난은
침략환난(神聖患難)이다. 고로
우려민족은 오늘날의 환난을 잘 견
디기 바란다. 때복자가 되지 말고

뜻이 박하고 행동한 십자가 위
에서 교세를 위하여 목숨이
줄지어는 그때에 그 오래오
래 지은 죄를 뒤우치고 영예
같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고
간구할 때에 예수께서는 대답하
시기를『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중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물지이다 지금은 온세나일
때요 구원의 날이라』하였으니
오늘이란 이날에 내 죄를 뒤
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만하면 곧 그 즉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독자가 운
데 아직도 예수의 구원을 받
지 못했는가 있거든 지금 곧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업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이시다.
기도를 들이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어
려운 것이 그 부모에게 말을 하
고 기도할 마음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이 이 기도를 참마
음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서는 곧 당신의 죄를 사해주
실 것이다. 한번 참마음으로 간
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이주시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눈물흘리고
고통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나아가면 당신
의 생활이 변하고 사람이 변
하는 것이다.
미국 러키 산 꼭대기에 적
은 못이 있는데 서로
거리도 그리 멀지않고 높이도
비슷하여 이편쪽 물을 저편쪽
으로 흘릴 수도 있을만함이다. 그
물이 졸졸 흘러 내려간 결과
는 커다란 차의가 생긴다.
곧 한편 못물은 동방으로
흘러 내려져서 『미시시피』강으
로 해서 멕시코만으로 들어가
고 한편쪽 못물은 콜롬비아강
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처음가려는 불과 백여도
못되는 것이 결국은 그 끝은 사
일만척이나 되는 큰 산을 사
이에 두고 오만여척 되는 먼
거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사람의 인생의 운명도 이와
같이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를 믿을 기회에 단연코 실패
하고 못하는데 따라서 그 사
람의 인생의 운명파 그 영혼
의 생사와 승락과 심판이 다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는 임종시에
『나는 젊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건만 악마의 말
을 들기에따라 그 기회를 놓
치고 그럭저럭 중년까지 왔고
중년 되어서는 도다시 회개
도 그날 지내와서 종래 지금
은 하나님도 없고 회개도 없
이 죽어버리게 되었다』고 한
것을 지으면서 한숨을 하였다
고 한다.
한사람은 회개하고 한사람은
회개 못하면 천국과 지옥의 운
명차라. 나중에는 운명의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단
단히 결심할 것이다. 결심하고
신앙과 구원의 생활을 하기만
하면 아무리 과거에 죄가 많
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가늘가
늘하고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새생활 새사람
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메리카 제七十회 광복대의
장병은 부산시외의 교외원전조
에 三千명을 기부하였다.
이 기부를 받은 교외원은
一九四五年에 장로교회의 어
느 목사가 개설한 것인데 그
속에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부
사람의 인생의 운명도 이와
같이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를 믿을 기회에 단연코 실패
하고 못하는데 따라서 그 사
람의 인생의 운명파 그 영혼
의 생사와 승락과 심판이 다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는 임종시에
『나는 젊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건만 악마의 말
을 들기에따라 그 기회를 놓
치고 그럭저럭 중년까지 왔고
중년 되어서는 도다시 회개
도 그날 지내와서 종래 지금
은 하나님도 없고 회개도 없
이 죽어버리게 되었다』고 한
것을 지으면서 한숨을 하였다
고 한다.
한사람은 회개하고 한사람은
회개 못하면 천국과 지옥의 운
명차라. 나중에는 운명의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단
단히 결심할 것이다. 결심하고
신앙과 구원의 생활을 하기만
하면 아무리 과거에 죄가 많
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가늘가
늘하고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새생활 새사람
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북문 밖에 나서면 정
면에 북한산의 피기 웅대하고
깊은 골바위가 솟아서 좌우
에 퍼져있는데 그 원형은 인
왕산이고 바문편은 백악으로
거꾸어 있다. 그것이三月말에
서四月초순경 되면 우선 살
구꽃이 피고 뒤따라 복숭아
꽃 사과꽃이 피는데 그 풍경
이야말로 한국이 아니면 볼
수없는 경치다 門外花柳
말은 이것을 두
고 하는 형용사
이리라 그 후수
한 풍경과 본
위기는 다만 꽃
이 많은 것에
서 아니라 그
배경과 환경이
갑제 융합하여
조화된 봄 분
위기를 자아내는
데 있다고 생
각되는게 거기에
한없는 아름다
움이 있다고
하리라.
서울
北門外

모형제를 받은 조아를을 비롯
하여 남편을 잃은 전설의 주인공
들이 수놓여있다. 따라서 이
의연군은 앞으로 이 모양의
미담을 펴고 아들을 위하여
직조공장 건설에 사용되리라
전한다.
石津(日) 主校生 獻金
韓國戰災孤兒爲
오1사까 사까시(大阪堺市
大小路)에 있는 일본기독교단
사까시교회 소속 이시즈주임학
교(石津日曜學校) 어린이 민음의
친구들은 한국전재교아를을 위
하여 현금八百圓을 헌금하였다
어린친구들은 주일학교선생님의
『이웃나라 한국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아 어
머니를 잃고 먹을것도 없고
가루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
을 듣고 현금한것이八百圓이
되어 한국인 사까시교회에 전
달을 이탁하여 왔다 한다.



杏春(二)

保健運動線上에飛躍

代表理事 鄭一亨

一九四七年第三回巴里유럽總會
매년四月七日을 세계보건
로 제정하여 세계각국에서 보
건사상은 고취하여 萬人으로하
여금 최고도의 건강을 유지하
도록 국제적 협조와 공동노력
을 경注할것을 요청하기로 결
의하였다.

一九四八年四月七日 WHO 세
계보건기구) 그 본부를 서
「제네바」에 설치한이후 현재
비활동국十個國을 포함한 八十
二個國의 회원국과 「모로코」南
「로드시아」 「유나사아」等 三
個國의 준비회원국으로 조직된

「세계기구」의 하나다 현재 「B
시슬림」 박사 領導下에 一千名
의 기술자와 행정관을 통한
국제적 유엔의 전문기구요 현
재세계六大地域에 사무소를 설
치하여 보건행정적의 적극적인
사상고취와 병마退治와 국민
적극적 시책을 실현을 위하여
공작함은 世人이 周知하는 사
실이다.

건강은 물론 우리인간의 해
복의 기본요소요 만복의 근원
임이 틀림없다 건강없는
사업도 성공도 또한 繁榮도
바랄수가 없으며 허약한 사람
은 병마해 시달리어 及기타
최외와 자멸을 초래하는 운명

의 주인공이 되고야마는것도
사실일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은
富요 국민은 보건의 그 국가
의 최대의 방위력이요 그국민
의 최고의 생산력을 발휘하는
근원이 될것이다 一身의 건강
이없는 문화 宗로 산업 科
육 정치등 현대인으로서의 생
존에 妨礙할수가 없을것이요
一身의 최약은 眞한 질병 科
을 無價와 범죄의 불행과 비
극의 연속으로 일한 사회의
나오자를 면할 도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팔라」의
國民교육이나 「나치즘」의 병자
도리運動이나 또한 문명제국에
서 국민교육의 최대의 目標들
심신의 건강을 爲主하는 全人
교육에 準하는 철학도 정당한
관 근거가되고도 남는것이다.
「은둔하자! 건강하자! 활동
하자!」는등을 인간목표로써

최대理想과 원칙을 삼는 北구
人의 생활철학도 응당 여기에
기인한바있을것이며 현대와같이
기계문명이 발전한 미국에서
보건이 富力이라고 믿음도 국
민적 자각과 精神의 산물이
아닐수가 없을것이다.
국제사회의 집단적 안전보장
과 항구평화를 달성할뿐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려고 노
력하는 유엔이 그 範疇이며
국제질서의 수립과 평화운동의
기초사업으로써의 人類의 공동
위생과 병마退治를 기본원칙으
로 인고 활동함이야말로 국제
사회정립과 기본요소가 됨을
이해하는바일것이요 이 範疇下
에서 WHO가 국제적 협조밑에
세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현
재 發展한 諸國과 發展中의 諸
國중에는 經濟的의 의무와 책
임이라고 할것이다.

한글 교실

담당 張曉

기독교의 모든 출판물은 물론, 이제 성경도 한글 판으로
출판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신자는 성경을 읽고 뜻을
바로 알기에 또는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한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은 높아 가는 중이며 독자 여러분의 절실한 요청
도 있어, 이에 본지의 지상에 계속적으로 이 난 (欄)——
“한글 교실”을 두어 한글을 연구하려는 이의 참고가 되게
하러 하오니, 독자 여러분은 효과 있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는바입니다. (복음 신문 편집국)

담당 張曉의 말씀 — 이번에 이 복음 신보 지상에 “한글
교실”을 설치하게 되어 많이 없는 제가 이 “교실”을 담
당하여 독자 여러분이 한글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하러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흥미 있게 공부하시기 위하
여 이 “교실”은 문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사오며, 각층의 독
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라, 쉬운 물음이든지 어려운 물음이든
지 여러분의 물음을 환영합니다. 물으시는 말씀은 (福音新報
社 한글 교실)로 보내시면 “교실”에 실어 대답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면 (紙面)에는 제한이 있어, 묻는 이가 많을
때는 대답이 늦어 질 수도 있을 터이오니, 속히 알고자
하시는 이는 반신료 (우표 10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
접으로 대답하여 보내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익명 (匿名)
으로 하실 수 있으나 물음에는 주소와 성명을 분명히 적
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 해방 후 서로 나온 복
잡한 발침법은 어떠한 법칙으
로 쓰이는 것입니까?

(東京 朴文 周)

(대답) 물으시는 말씀이 맞춤법
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쓰는 맞춤법은 해방 후 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글 학
회 (전 조선어 학회)에서 1933
년에 발표한 한글 맞춤법
일안의 규정에 의하여 쓰이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경과는

그 목적은 그와 반대로 질서
없이 쓰이는 우리 말에 질서
정연한 통일법칙을 세우려
는 데 있었읍니다. 이 통일안
에는 어디까지든지 재래의 방
법은——그것이 문법적 법칙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 한——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였으며,
간편하게 하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일안 제정은 그 밖의
여러 사업과 아울러 사전 편
찬의 기초 공사가 되는 일이

山 金 燕 星

팔을 잘라 가도
까뭇물 벗겨 내도
山은 말이 없다
다리를 꺾어 가도
가슴을 우벼 파도
山은 묵묵하다
피 흐르는 가슴에
山은 말없이
월남민을 품더라

第四回 세계보건일을 마지하
여 우리三千萬 동포는 건강은
괴인의 최대의 행복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와 국제적인 번영
과 평화운동의 근본요소가 됨
을 알고 있다.

「복사암」과 「선생님」의 말씀
을 들은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때 제 방과
에는 여러운것 같지 않은데
요 「어제서 어렵지 아니한가
한 선생이 무슨새 대답하는
말에 「저는 아슴에 자요

우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는
대한 노력과 활약을 애써서
안될것이다.

이면교회의 목사님과 신
남들이 모여 앉아서 성경의
말씀가운데 무엇이 제일
드러나는 이야기들 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말이 있었
으나 「한상 기도하라」하는
말씀이 제일 행하기가 어
은 말씀이라고들 하였다.
이때 차를 가지고들어 하
든모하네가 이말들을표 있다가

香氣 종일

을 인하여는 두가지로
처음한 말씀은 「복사암」의
「선생님」과 「한상」의
말씀을 들은후 항상 기도하
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행하
기 어렵다고 하시는때 제 방
과에는 여러운것 같지 않은데
요 「어제서 어렵지 아니한가
한 선생이 무슨새 대답하는
말에 「저는 아슴에 자요

內科 小兒科
外科 皮膚科

福 音 醫 院

診察時間 午前九時—午後五時
(往診隨時) 午後六時—午後九時
(日曜及祭日休診)

大阪市東淀川区南方町九〇九
道順阪急南方驛北半丁